

한국전쟁 트라우마의 서사적 형상

- 몇 가지 국면에 대한 소묘 -

장일구*

|| 차례 ||

1. 서론
2. 한국전쟁 트라우마의 징후
3. 한국전쟁 트라우마의 자장
4. 한국전쟁 트라우마의 서사적 반향
5. 결론

【국문초록】

정신적 외상이라 번역되는 ‘트라우마’는 충격적 경험이 잠재의식에 각인되었다가, 때때로 무심코 떠올리는 기억으로 드러나 심대한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병증이다. 전쟁과 같은 사회적 위기 상황은 심각한 트라우마의 요인이다. 동족상잔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부가된 한국전쟁은 정신적 충격의 지수를 증폭하는 변수가 더해지면서 개인은 물론 한국 사회 전반의 위기 상황을 심화하였다. 특히 전후의 이데올로기적 억압 구조와 그 담론적 실천 국면은 한국전쟁 트라우마를 사회적 차원의 문제로 비화시켰다. 이에 대한 서사적 대응 양상은 서사를 통해 말문을 틔우는 치유의 전략에 수렴된다. 이청준을 비롯하여 한승원이나 임철우 등의 소설에 드러나는 서사적 형상은 이런 맥락에서 의미심장한 문학적 병리학의 단서라 할 수 있다.

주제어 : 트라우마, 정신적 외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한국전쟁, 한국전쟁 트라우마, 서사적 치유

* 전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1. 서론

전쟁은 인간의 삶에 심각한 위기 상황을 조장한다. 평화로운 일상의 안정을 무너뜨리는 돌발 사태에 직면한 이들이 겪는 고초는 미루어 짐작하기 힘들 정도이며 그 양상 또한 일정한 방향을 점칠 수 없게 파상적이다. 전쟁 와중에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고 부상을 당하는 등 육체적 손실과 그로 인한 고통은 말할 나위 없이 심각하다.

삶의 전방위에 걸쳐 혼란에 빠진 이들에게 가해진 충격은 정상적인 의식 작용을 곤란하게 한다. 공동체의 위기 상황 속에서 개개인의 입장이나 처지, 행적 등과 무관하게 돌연 직면하게 된 사태는 정신적 공황을 부르며 충격적 경험으로 각인된다. 그래서 전쟁은 사람들의 정신에 심대한 상처를 안긴다.

전쟁으로 인한 혼란을 수습하고 사회를 재건하기 위해서 물리적인 폐허의 현장을 복구하고 부상의 후유증을 치료하여 일상의 질서를 회복하려 도모하는 것은 수순이다. 이때 정신적 외상은 육체적 외상의 환부보다 더 심각한 병증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는 점을 넘겨봐서는 안 된다. 정신적 외상의 환부는 그 외연을 가늠하기 어려우며, 병증의 징후가 어떤 양태로 드러날지 예측하기 곤란한 탓에 주목을 끌지 못할 수 있다. 더욱이 그 병증의 징후가 즉각 발현되지 않고 잠복기를 거치듯이 의식 저변에 잠재되어 있다가 예측하기 어려운 어떠한 계기로 인해 돌발하는 까닭에 전쟁으로 빚어진 결과로 알아차려지지 못할 공산이 크다.

전쟁이라는 위기 상황 자체가 주는 정신적 압박(stress)과 전쟁 와중에 직면한 충격적 경험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의식의 저층 또는 무의식의 층위에 각인되어 잠재될 수 있다. 의식의 통제를 받던 욕망이 의식이 잠든 사이 떠올라 펼쳐진다는 ‘꿈(Traum)’과 흡사하게,¹⁾ 저러한 압박과 충격은

의식의 통제가 무력해지는 순간 의식 위로 역동하여 정신의 안정된 구도에 심각한 혼란을 조장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정신이 다쳐 생긴 외상인 ‘트라우마(Trauma)’는 그렇듯 육체적 외상과 다른 차원에서 사람들을 고통에 몰아넣어 삶의 장에 위해를 가하는 위험한 기제(mechanism)이다. 이는 특히 원인 상황과 동떨어진 시간이나 공간에서 예측 불가능한 삶의 위기를 부르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십상이어서 과급력이 대단하게 느껴진다.

특히 ‘한국전쟁’은 전쟁 일반의 문제 상황에 소위 ‘동족상잔’이라는 특수한 문제가 덧붙여 그 상황에 직면한 이들의 스트레스와 충격의 지수를 증폭하는 변수가 부가되어 있다. 가령 가족과 친지가 생사의 갈림길에 서는 상황을 목도하는 것만으로도 충격이지만, 그런 상황으로 내몬 이가 또 다른 가족이나 친지라면 그 충격은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커질 수 있는 것이다. 한국전쟁은 그러한 충격들이 표상으로 응축되어 표지가 덧붙은 양태로 기억되는 것이 상례이니, 이에 관한 담론은 트라우마와 조응되는 국면들이 중요한 거점을 이루는 것이 온당하다. 이를테면 한국전쟁을 배경이나 제재로 한 소설에 드러난 트라우마의 징후들을 들추어 살피고, 전쟁이 유발한 정신적 외상의 환부가 삶의 장에서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그 형상화 양상과 치유를 모색하는 서사적 대응의 양태를 조망할 여지가 열린다.

한국전쟁의 트라우마는 비단 전쟁 현장에서 빚어진 정신적 외상에 대한 제재만을 언급하는 데 그치지 않고, 분단과 이데올로기적 극한 대립의 응축체인 ‘한국전쟁’이라는 역사적 사건이 부른 정신적 외상의 징후에 관여된 현상을 아우르는 계열표상(패러다임 paradigm)을 일컫는다. 이에는 분단을 야기한 해방기 좌우 이념 대립부터 분단 후 한국전쟁기에 극화되고 오늘날 삶의 내밀한 구석에까지 자장(磁場)을 미치는 반공 이데올로기의

1) Sigmund Freud, *Der Mann Moses und die monotheistische Religion*, Gesammelte Werke XVI, S. Fischer Verlag, 1981, S.179 참조

담론적 실천들이 포괄된다. 특히 트라우마는 그 자체의 실체를 파헤치는 것만이 관건이 아니라, 그로 인해 빚어진 사후의(post-traumatic) 정신증적 장애(stress disorder)로 드러나는 징후와 그 과장으로 유발된 현상을 들추어 이해하는 것이 관건이기 때문에, ‘한국전쟁 트라우마’의 의미망은 그 범위와 자장이 특정 시기나 장소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²⁾

2. 한국전쟁 트라우마의 징후

‘정신적 외상’이라 번역할 수 있는 ‘트라우마(Trauma)’는, 충격적 경험이 잠재 의식에 각인되었다가, 때때로 무심코 떠올리는 기억으로 드러나 심대한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병증이다.³⁾ 그 기억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이들은 심한 정신적 장애(외상-후-스트레스-장애 PTS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를 겪는다. 이는 육체적 외상보다 더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게 마련이며, 외상이 없는데도 몸이 아픈 심신증(psychosomatic

2) 이 글은 2014년 한민족어문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글을 수정한 것이다. 의뢰 받은 주제가 전남 지역 작가의 작품을 중심으로 드러난 한국전쟁의 트라우마에 관한 것이었는데, 이에 부응하여 논의 범위를 일차 한정하였다. 다만 처음 가설과는 달리 전남 지역 특유의 상황에 관여된 자질을 발견하기 곤란한 면이 있음을 의식하게 되었다. 이는 전쟁 트라우마 자체가 인간 무의식의 현상을 일반적 술어로 환원한 개념이라는 점과 연관된다. 이 맥락에서 전남 지역 작가의 소설 몇몇을 사례로 이 주제에 대해 살피는 일이 특정 지역에 특화되거나 고유하게 드러나는 국면을 도출할 것을 전제로 한 설정이 아니라는 점을 덧붙인다. 이는 논의 대상의 범위를 한정하기 위한 설정인데, 혹 지역에 특화된 단서를 포착한다 치더라도 당장은 가설 수준의 성긴 생각을 구상하는 데 그칠 공간이 클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는 얘기이다. 그런 면모를 밝힌다고 해도, 트라우마에 관한 입론의 의의를 염두에 두고 보면, 한국전쟁 트라우마에 관해 생산적인 논의의 지평을 열 것이라고 자신할 수도 없다. 이 글은 논의 대상의 범위를 한정하여 밑그림을 그리는 소묘에 불과하다.

3) 프로이트(Freud), 앞의 책, p.177.

syndrome)을 수반하기도 한다. 심각한 외적 징후가 드러나든 특별한 징후 없이 잠재되어 있든, 트라우마는 삶의 장에 심대한 위해를 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무의식적 역동 기제의 동력원이다.

이러한 트라우마는 의식과 무의식 사이의 구도에 관여된 개인의 정신적 기제에 관한 항이면서도, 그 원인이 되는 충격적 경험이 공동체의 위기에서 비롯된 것일 경우 사회적 차원의 문제로 비약되곤 한다. 이를테면 반공 이념과 분단 체제의 이데올로기적 억압 구도에 짓눌린 시대의 아픔은 그 자체가 한국전쟁 트라우마의 재생산 구도를 빚는다. 동족상잔의 전쟁이 비극적 트라우마의 텃밭이라면, 반공 이데올로기는 그 아픈 기억을 들추어 개인적 원인과 복수심을 완고한 이념 갈등의 구도로 환원함으로써 강박이나 피해망상과 같은 증후군을 사회적 차원에서 유발하는 악순환 구조를 키우는 거름이라 할 만하다.

시대와 불화를 겪는 문제적 개인을 다루어 갈등 구도의 핵으로 삼는 소설(novel)이라면 이러한 트라우마에 관한 표상들을 최적화하여 서사의 주제로 삼기에 제격일 것이다. 데뷔작인 『퇴원』 이래 서사적 병리학이라 할 서사 주제를 형상화하여 한국 현대 소설사에 한 획을 그었다고 평가 받는⁴⁾ 이청준의 소설에서 한국전쟁 트라우마의 징후들이 많이 포착된다. 한국전쟁의 상흔을 정면으로 다룬 『병신과 머저리』에서, 육체적 부상보다 정신적 외상의 징후가 더 큰 고통을 유발한다는 점을 이야기한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정신적 외상으로 야기된 심신증의 징후들 또한 시사되면서 정신적 외상의 증후군이 그의 여러 소설에서 이야기된다. 특히 『소문의 벽』은, 그의 소설에서 드러나는 트라우마의 원형 모티프라 할 수 있는 ‘전짓불 공포’의 파장이 삶의 전역에 영향을 미친다는 설정을 기조로 여러 겹의 이야기를 조응시켜 한국전쟁 트라우마의 의미망을 조밀하게 직조한 작품이다.

4) 이재선, 『현대 한국소설사』, 민음사, 1991, pp.210-212, pp.230-242 참조.

간호원이 병실을 들어서자마자 박준이 느닷없이 발작을 일으켜 버렸다는 것이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간호원은 그때 어둠 때문에 손전등을 켜들고 병실로 들어섰는데, 그 전깃불빛을 얼굴에 받자마자 박준은 별안간 비명 같은 소리를 지르며 번개같이 간호원에게로 달려들더라고.

그리고는 난폭스럽게 전깃불을 후려뜨리며 미친 듯 화가 나서 간호원의 목줄기를 마구 눌러 대더라는 것이었다.<…>

“도대체 박준은 어째서 꼭 불을 밝혀 놓아야 잠이 들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전깃불을 보고는 왜 갑자기 발작을 일으킨 것입니까?”

“아주 중요한 걸 물어시는군요.”<…>

“글쎄, 나 역시도 어젯밤 우연히 그런 발작이 나기 전까지는 환자가 특히 어둠을 싫어하는 이유를 알아내지 못하고 있었거든요.<…>한데 어젯밤 발작을 보고는 비로소 어떤 힌트를 얻을 수 있었어요. 무슨 얘기가 하면, 환자가 그토록 어둠을 싫어하게 된 것은 직접적으로 그 어둠 자체를 싫어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어둠으로부터 연상되는 어떤 다른 공포감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그 전깃불 같은 것이 바로 그런 거지요. 환자가 진짜 발작을 일으키도록 심한 공포감을 유발 시킨 것은 어둠이 아니라 그 어둠 속에 나타난 전깃불이었다는 말씀입니다. 환자예겐 그 어둠이라는 것이 늘 전깃불을 연상시키고 있는 공포의 촉매물이었지요.” (『소문의 벽』, 198-199쪽)

‘박준’이 일으킨 ‘발작’이 ‘전깃불’에 대한 돌연한 반응이었으며 그 전깃불이 그에게 극심한 공포감을 부르고 있다는 데서, ‘전깃불 공포’가 정신증적 징후의 원인에 해당하는 트라우마로서 작동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난다. 그 트라우마의 연원을 밝히는 일이 정신적 이상 징후에 대한 대응책을 세울 단서를 얻는 길이라는 점이 기술되어 있는 것이다. 발작을 통해 드러난 이상 행동에 대한 대응요법이 아니라 그 징후를 발현시킨 정신적 외상의 연원에 관심하는 분석적 처방이 요구된다는 점이 고지된 것만으로도, 인간

5) 이청준, 『소문의 벽』, 이청준, 『병신과 머저리 외』, 『한국소설문학대계』53, 두산동아, 1995. 이후 같은 책에서 인용할 때에는 인용 대목 끝에 작품명과 쪽수만 밝히기로 함.

의 정신적 징후에 접근하는 섬세한 구상의 일단을 엿볼 수 있다. 그리고 그 요인으로 충격적 경험의 트라우마를 설정하였음이 드러나면서 이 소설이 지향하는 주제 의식의 상당한 밀도와 무게감이 확인된다.

어렸을 때 겪은 일이지만 난 아주 기분 나쁜 기억을 한 가지 가지고 있다. 6·25가 터지고 나서 우리 고향에는 한동안 우리 경찰대와 지방 공비가 뒤죽박죽으로 마을을 찾아드는 일이 있었는데, 어느 날 밤 경찰인지 공인지 알 수 없는 사람들이 또 마을을 찾아 들어왔다. 그리고 그 사람들 중의 한 사람은 우리 집까지 찾아 들어와서 어머니하고 내가 잠들고 있는 방문을 열어 젖혔다. 눈이 부시도록 밝은 전깃불을 얼굴에다 내리비추며 어머니더러 당신은 누구의 편이냐는 것이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때 얼른 대답을 할 수가 없었다. 전깃불 뒤에 가려진 사람이 경찰대 사람인지 공비인지를 구별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대답을 잘못 했다가는 지독한 복수를 당할 것이 뻔한 사실이었다. 하지만 어머니는 상대방이 어느 쪽인지 정체를 알 수 없는 채 대답을 해야 할 사정이었다. 어머니의 입장은 절망적이었다. 나는 지금까지도 그 절망적인 순간의 기억을, 그리고 사람의 얼굴을 가려 버린 전깃불에 대한 공포를 생생하게 간직하고 있다. (『소문의 벽』, 204)

전쟁은 그 자체만으로도 사람들에게 심대한 위기감과 공포감을 안긴다. 그런 처지에 내몰린 이들에게 위와 같이 생사를 가를 선택을 강요받는 절체절명의 상황은 강도 높은 트라우마를 의식 저변에 각인하기 십상이다. 체험의 당사자가 아니라 그 절망적 상황을 숨죽인 채 목도하는 처지라고 해서 그 공포의 자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의식이 온전히 다져지지 않은 아이로서는 직접적인 경험보다 공포에 질린 어머니의 모습에서 더 큰 충격을 받았을 법하다. 오히려 의식의 방어 기제를 작동하지 못하는 미성년의 비상한 체험은 무의식의 심연에 더욱 저변화 되어 에너지가 증폭된 트라우마의 양태로 전화될 수 있다. 어쨌든 극심한 이념 투쟁

속에서 적대적 이념을 봉쇄한 채 소통의 여지를 허용하지 않는 상황에서 한국전쟁 트라우마가 응축되어 빚어진다는 표상이 위와 같은 비극적 사건을 통해 형상화되고 있어 의미망의 중요한 교점이 구성된다고 할 수 있다.

전쟁 당시의 기억이 잠재되어 있다가 어떠한 계기에 의해 의식 궤면으로 들추어져 역동함으로써 발작과 같은 스트레스 장애를 유발하는 것이다. 이러한 트라우마가 개인 차원의 정신적 외상 징후를 유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적 차원의 스트레스 장애 요인으로 비화된다는 설정을 통해 그의 의미망이 확장된다. 이는 일방적 강요로 소통을 봉쇄하여 공황을 조성하는 ‘전깃불’이란 기체가 그러한 문제 상황에 대한 진술한 자기 진술을 가로막는 정체 모를 거대한 힘으로 전형(轉形)되는 상황을 문제 삼는 형국이 전개되면서 그러하다.

한테 요즘 나는 나의 소설 작업 중에도 가끔 그 비슷한 느낌을 경험하곤 한다. 내가 소설을 쓰고 있는 것이 마치 그 얼굴이 보이지 않은 전깃불 앞에서 일방적으로 나의 진술만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말이다. 문학 행위란 어떻게 보면 가장 성실한 작가의 자기 진술이라고 할 수 있다. 한테 나는 지금 어떤 전깃불 아래서 나의 진술을 행하고 있는지 때때로 엄청난 공포감을 느낄 때가 많다는 말이다. 지금 당신 같은 질문을 받게 될 때가 바로 그렇다…….

(『소문의 벽』, 204-205)

전쟁 외중의 절망적 상황에서 겪은 공포감은 시공의 격차와 사안의 차이와는 무연하게 ‘소설 작업’으로 흡사하게 이어진다는 것이다. ‘가장 성실한 자기 진술’이어야 할 소설 쓰기를 방해하는 상황은 일방적 이념의 선택을 강요하여 그 결과에 따라 생과 사의 갈림을 결정했던 정체 모를 상대의 위협과 강압이 고스란히 힘을 발하였던 절망적 상황에 비견된다는 얘기다. 둘 사이의 인과적 고리나 계통적 교점이 선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대

와 문제 상황의 지점이 사뭇 다르지만, 사실을 이중으로 허구화하는 장치인 서사적 액자 구성을 취하는 한편 트라우마의 발현 기제를 서사 전개 of 거점으로 설정하여, 한국전쟁 트라우마와 문학 행위의 계열 관계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다.

전짓불 공포를 야기한 기억을 성실하게 진술하려는 문학 행위와 그러한 작업을 검열하듯 일방의 진술을 강요하는 억압적 시대 상황 사이에 조성되는 긴장에 주목하는 한편, 서사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인지 공정을 통해 재구성되는 허구의 효력을 염두에 두고 보자면, 위와 같은 트라우마로 조장된 부조리 상황 자체를 진술하는 정황을 통해 트라우마의 연원과 작용 기제가 들추어져 직면할 수 있게 상대화되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이로써 서사적 치유의 처치 공정이 발단되는 서사적 병리학의 가능성이 타진되고 있으며, 종내는 전짓불 뒤에 숨은 기제의 정체와 무관하게 정직한 자기 진술을 행하는 작가의 의식에 관여된 이 소설의 본질적 주제 의식이 의외로 선명하게 드러나 있음을 알 수 있다. 소설은 전짓불 공포를 치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심산 말이다.

한국전쟁 트라우마는 짐짓 전짓불 공포에 수렴된다고 해도 좋을 만큼, 일방의 이념을 집요하게 강요하고 다른 가치를 목살하여 제삼의 생각이나 의사를 표하는 것은 물론 마음에 품는 것조차도 금기시하는 억압 기제가 삶의 구석구석에서 은밀히 작동하는 현실적 문제 상황에 자장이 미친다. 그 트라우마는 비단 충격적 경험에 직접 노출되었던 개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역사적 계통으로 구성된 사회 문제에 수렴되어 파장이 큰 것이다. 전장(戰場)은 수습되었지만 전쟁의 시발이 되었던 이데올로기적 전장은 수습되기는커녕 삶의 전역에 걸쳐 저변화되면서 확장된 형국이다. 한국전쟁 트라우마의 징후만 아니라 그 자장에 대한 서사적 형상에 관심할 여지가 사뭇 큰 셈이다.

3. 한국전쟁 트라우마의 자장

한국전쟁 와중의 비극으로 빚어진 트라우마 못지않게, 전쟁 이후 사회 전반의 제도와 문화는 물론 사람들의 의식을 장악한 반공 이념의 압제로 트라우마가 확대 재생산되는 양상이 이목을 끈다. 이른바 국시로서 체제를 공공히 유지하는 데 크게 기여해 온 ‘반공’은 모든 가치의 위에 군림하여 정치 영역은 물론 문화 전반에 걸쳐 강력한 장악력을 발휘해 왔다. 사람들은 저 이념적 통제 아래 적대적 이념은 물론 제삼의 생각을 말하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는 완고한 체제 속에서 극심한 압박감에 시달린다. ‘레드 콤플렉스’라 부르는 것이 어색하지 않을 만치, 이념적 통제 상황은 심대한 정신적 징후의 위험이 응축된 집단적 무의식을 조장하였던 것이다.

실로 체제의 안정을 해친다는 미명 아래 적지 않은 시국 사범이나 반체제 활동이 간첩단 사건으로 조작되면서 사회 전역에 충격파를 안겨 왔다. 사건의 주모자나 가담자로 몰려 공산당 빨갱이라는 낙인이 찍힌 이들은 자신은 물론 그 주변의 사람들은, 고문을 당하여 육체적 상처를 입는 것은 물론 정신적 외상을 안고 고통스러운 삶에 내몰린다. 당사자가 아니라도 체제 권력이 자행한 사태에 직면하여 충격을 받은 이들이라면 부지불식간에 의식 저변에 상흔을 안게 될 상황에 노출된다. 전방위에 걸쳐 작동하는 이념 통제와 의식의 억압 기제는 사회 성원들에게 사회적 트라우마라 해도 좋을 정신적 혼란의 요인을 안겨 왔다. 한국전쟁을 규정하는 동족상잔의 충격이 반공 체제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사태에서 오는 충격과 어우러지면서 ‘사회정신’은 억압되고 저변화 되어 짐짓 집단적 콤플렉스가 빚어진 것이다.

한국전쟁 트라우마는 전쟁기와 한참 동떨어진 시간과 공간에서도 그 파장이 사그라지지 않고 어떤 계기마다 들추어져 개인이나 사회 차원에서 문제 상황을 빚곤 한다. 상대적으로, 정신적 상흔을 직시하고 이를 치유할

수 있는 계기를 열어 보기 위해서, 시공의 격차에 구애될 없는 그 트라우마의 자장을 현실의 문제 상황에 수렴시켜 읽어 내는 해안이 요구된다. 체제 이념에 대한 반체제 이념 투쟁이 반공이라는 이념의 블랙홀에 빨려 들어 무력화되거나 레드 콤플렉스에 휘말려 체제 이념을 더욱 공고하게 하는 빌미로 악용되는 슬한 사례에 비추어 보면, 반공 이념에 대한 이념적 대응의 한계를 의식할 수 있다.⁶⁾ 분명 이념 자체에 대한 비판적 성찰과 대안 모색이 문제 상황의 해결에서 중추를 이루는 방향이겠지만, 이념 대립과 이념 통제 외중에 황폐화된 사회의 구석구석에서 벌어지는 문제 상황에 관심을 돌리자면, 반공 체제의 이념이 삶의 장을 장악하여 펼쳐지는 담론적 실천의 면면들을 들추고 이에 대응하는 대항 담론을 구성하는 데 관심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말할 수 있다.

이청준은 그러한 담론으로서 매우 유효한 거점을 정립했다고 할 수 있다. 그의 소설에서 한국전쟁 트라우마의 자장은 제법 넓게 형성되어 있다. ‘전깃불 공포’로 대변되는 그 트라우마는 전쟁 당시의 공포에 국한되지 않고 일방적인 이념의 강요로 인간 본연의 순조로운 생각과 이를 나누는 소통 경로가 억압된 현실의 단면을 들추는 표상으로 활용된다. 말문을 띄워야 정신적 외상의 치유를 위한 단서를 찾을 수 있건만 일방의 이념을 강요하는 체제는 그러한 말문을 틀어막은 채 소통의 장을 열지 못하게 하는 폐쇄적 사회만을 용인할 뿐이다. 도리어 여러 생각들의 가치를 호도하고 진실을 은폐하려는 은밀한 풍문을 유포하는 책략이 쓰인다. 일방의 이념을 강요하는 전깃불 공포에 연결된 트라우마는, 양방향으로 순조로이 열린 소통의 여지가 봉쇄한 현실의 계기들에 연루되면서, 실존적 부적응의 징후를

6) 가령 조정래의 『태백산맥』과 같이 이념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소설-그도 대항 장편 규모의-의 가치와 한계가 이와 무관하지 않다. 중도적 이념을 부각하는 소설이라도 마찬가지로 맥락에서 한계가 드러난다.

확산하는 기제를 작동시킬 상징적 뇌관으로 전화된다. 『소문의 벽』을 비롯하여 전깃불 공포를 모티프로 한 여러 소설에서, 이념의 은밀한 통제를 위한 담론적 실천의 양상들이 소문의 형태로 유포되는 현상이 트라우마에 맞닿아 있다는 서사적 설정은 무릎을 칠 만하다.

‘아니 땀 굴뚝에 연기 나라.’라는 말이 있다. 그런데 사실 무근의 허구라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퍼지는 과정에서 버젓한 사실로 뒤집히는 경우가 있다. 사실보다 더 그럴싸하게 꾸며진 허구가 사실로 인정되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사실이 허구로 오인되는 일마저 벌어질 수 있다. 일의 인과와 무관하게 흥미를 끄는 언사로 사람들을 현혹하거나 일방의 전언을 강요하며 으르는 이들은 불을 지피지 않고서도 연기를 피우는 술책을 부린다. 그 술책은 현실 문제의 연원이나 현황을 흐리거나 가림으로써 어떤 문제도 없는 것처럼 꾸미는 데서 효력이 적중된다.

-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고 싶다. 당신은 아까부터 자꾸 전깃불의 공포라는 말을 써왔는데, 그리고 당신은 지금도 그 전깃불의 간섭을 받고 있다고 말했는데, 당신의 소설 작업과 관련하여 지금 당신은 어떤 곳에서 그것을 느끼고 있는지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 줄 수 없는가.
- 말해 줄 수 있다. 그것은 소문 속에 있다.
- 소문 속에라면, 실제로는 존재하고 있지 않다는 말인가.
- 실제로도 존재하고 있을 것이다. 정체를 밝히지 않기 위해 소문의 옷을 입고 있는 것뿐일 것이다. 그래야 그것은 우리들을 더욱 효과적으로 복수할 수 있을 것이 아닌가. 게다가 사람들은 원래 그런 소문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를 위해선 늘 두꺼운 소문의 벽을 쌓아 주고 있는 것이다. (『소문의 벽』, 231)

이러한 소문의 벽에 부닥쳐서도 진실을 들추려는 시도가 소설 작업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언명이 재삼 주목을 끈다. 한국전쟁 트라우마의 원상을 낳은 전깃불은 현실적 연관 속에서 소문으로 변주된 것으로 설정된다. 온

전한 자기 진술에 해당하는 소설 작업에 간섭하는 전깃불은 정체를 호도하는 소문을 입은 채 진술한 자기 진술을 방해하고 그러한 진술은 도모하는 이들에게 여지없는 복수를 가할 음모를 기획하고 있다는 것이다. 어느덧 사람들은, ‘정직한 자기 진술’(『소문의 벽』, 230)을 가로막고서 결국은 일방의 이념을 강요하듯 진술을 봉쇄하는 소문에 길들여지고 도리어 더 완고한 소문의 벽을 조성하는 데 동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짐짓 언론이 막히고 강요된 이념에 강박된 이들이 그러한 처지와 문제 상황을 의식하지 못하는 터라, 관성화 된 삶의 방식에 균열을 가하는 트라우마의 원인 상황을 들추어 알아챌 재간이 없는 것이다. 그렇지만 관성화 된 사회의 이념적 벽에 대해 위기감을 느끼고 그러한 위기의 시대에 대응하는 작가의 역할에 두고 보면, 한국전쟁의 위기 상황에서 빚어진 트라우마의 자장이 미치는 현실 상황에 대응하는 ‘정직한 작가’의 태도와 의식에 대한 다음 진술이 트라우마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말문을 트게 하는 치유의 방책에 대한 작가 의식을 엿보게 한다.

어느 시대 어느 지역의 작가를 막론하고 그가 만약 정직한 작가라면 자기의 시대를 위기의 시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그런 위기의식을 가지고 자기의 시대를 극복해 나가려는 방법은 작가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물론 주관적으로 말한다면 한 시대가 모든 작가들에게 어떤 특정한 작업 방법을 요구해 올 경우를 상상해 볼 수는 있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 한 시대의 압력이란 모든 작가들에겐 상대적인 것이며, 일률적으로 그들을 강제할 기준을 지니게 된다고는 말할 수 없다. 작가는 그가 만약 자기 시대의 요구를 비겁하게 회피하지만 않는다면 그것을 성실하게 극복해 나갈 방법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는 뜻이다. 다른 것은 그 방법일 뿐이다.(228)

『소문의 벽』에서 정체를 밝히지 않기 위해 ‘소문’으로 치장한 ‘전깃불’을

부리는 이들은 교묘한 언사로 사람들을 현혹하는 이들로서 한국전쟁의 트라우마를 확산하는 이념의 통제자들에 상응한다. 현실을 반영하여 실제 상황과 흡사한 허구를 유포하는 소문의 방식은 그럴싸하게 꾸민 말을 사실로 전도시키는 효력을 발휘하는데, ‘벽’을 세워 실제에 범접을 허용하지 않아 사실을 호도하는 소문의 속성을 고려하면, 사실을 온전히 파악하는 것이 본디 가능하지 않다는 생각이 궤를 같이함 직하다. 정체 모를 소문들이 사람들 사이에 퍼져 진실을 말하지 못하게 했다는 것은 날조된 이야기라도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동안 사실인 양 뒤바뀌는 양상과 흡사하다.

이러한 소문의 본색과 유통 양상은 이데올로기의 유포 전략을 일깨운다. 트라우마의 병반을 후비는 악한 책략들이 이에 활용된다는 점에 비추어, 이데올로기의 강압과 트라우마를 고착화하려는 책동은 상통하는 면이 있는 것이다. 소문을 조장하고 유포하는 이데올로기의 책략이 트라우마가 삶에 위해를 가하는 경로와 흡사한 면도 주목할 만하다. 이념적 억압 구도 속에서 파생된 소문이 소문의 소문을 낳고 그 층위가 겹으로 심화되고 확산되는 식으로, 트라우마가 무한저변화(*mise en abyme*)되는 징후들은 한국전쟁 트라우마의 자장이 무한 확장되는 정황에 맞닿는다 해도 좋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전쟁 트라우마의 역사적 문맥을 읽어 이를 서사적 갈등의 모티프로 변용한 단서는 흥미롭다. 특히 한승원의 소설에서 한국전쟁의 상흔은 역사적 비극의 맥을 타고 현실적 갈등의 저층을 이루는 것으로 전제되어 눈길을 끈다. 가령 『폐촌』은 인물 간의 갈등이 집안 간의 갈등으로 비화되고 비극적 역사의 격랑 속에서 얽히고설킨 채 한국전쟁의 상흔을 정점으로 하여 파국에 치닫한다는 설정을 축으로 한다.

풀색 군복을 입고 밤에 나타나서 마구 총질을 하던 형이 원망스러웠다.
형이 미르레네 집 식구들을 모두 죽이지만 않았어도 이 하룻머릿골은 이렇

듯 폐촌이 되어 버리지 않았을 것이고, 미륵레는 자기를 버리고 꼭두모실로 시집을 가지는 않았을 것이며, 또 자기가 이런 홀아비 신세로 늙어 가고 있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갯내 나는 셋마파람결 속에서 담배 연기를 깊숙이 들며마시는 그의 가슴을, 바다의 물결처럼 일렁거리게 하였다. (『폐촌』, 76)⁷⁾

‘미륵레’의 미심쩍은 귀향과 비정상적인 행위는 억측과 추문에 버무려진 채 그녀가 겪은 비극적 가족사를 알고 있는 이들의 염려와 두려움을 낳기에 충분하다. 그녀를 마음에 품지만 그녀에게 충격을 가한 사건의 가해자 가족이라는 사실에 괴로워하며 누구보다도 그녀의 삶을 염려하는 ‘벤강쉬’는 애증이 뒤섞인 감정을 투사한다. 왜냐하면 미륵레의 아버지는 일제강점기 말에 “징용 징병을 피하기 위해 모래밭에 끌어올려 엎어 놓은 채취선 밑에서 은신해 있는 큰물과 하룻머릿골의 젊은이들을 순사들에게 손가락 질해 줌으로 해서 주재소의 신임을 독차지하고, 그 신임을 업은 채 하룻머릿골 사람들을 종 부리듯”(77) 하는 등, 마을이 끝내 ‘폐촌’이 되게 한 최초 원인 제공자이기 때문이다. 벤강쉬의 아버지를 비롯한 많은 이들이 미륵레 아버지의 핍박과 수탈에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 와중에 역사적 격동기에 접어들어 잠재되었던 갈등이 폭발하면서 견잡을 수 없는 비극적 파국을 지은 것이다.

한데 해방이 온 게 탈이었다. 팔월 십육일 밤, 이때껏 돌돌 뭉쳐진 비바우영감에 대한 이 마을 사람들의 울분이 터지고 만 것이었다. 갯마을에 있는 학교의 일본 사람 교장이 살던 관사에 불을 지른 젊은 패들이 하룻머릿골로 몰려 들었다. 그들은 순식간에 당시 천다섯 살 난 비바우영감을 모래밭으로 끌어내다 짓밟아 파묻어 버리고, 이어 수선을 하기 위해 모래밭으로 끌어올려 둔 우다시배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버렸다.

7) 한승원, 『해변의 길손 외』, 『한국소설문학대계』59, 두산동아, 1995, p.76. 이후 같은 책에서 인용할 때에는 인용 대목 끝에 작품명과 쪽수만 밝히기로 함.

그 젊은 패들 속에서 가장 정신없이 날뛴 것이 다른 사람 아닌 벤강쉬의 형이던 것이었다. (『폐촌』, 77-78)

하룻머릿골의 밤을 대낮같이 밝히면서, 마치 하늘을 태우고 바닷물을 지글 지글 끓게 하는 듯 맹렬히 치솟는 시빨건 불길을 보면서, 그 해 열세 살 나던 벤강쉬는 너럭바위 옆에 웅크린 채 별벌 떨고만 있었다. 바짝 마른데다, 밑바닥 부분에 솔기름을 두껍게 먹여 둔 배에 붙은 불은 한밤중쯤 해서 이글거리는 숯불로 변했는데, 사실은 그것이 이 하룻머릿골을 폐촌으로 만든 불씨였던 것이었다. (『폐촌』, 78)

해방 이후 극단으로 치달아 한국전쟁을 야기한 이념 갈등이 일제강점기 내내 산적한 현실적 모순에서 촉발된 것이라는 인식은, 한승원 소설의 갈등 구도에서 중요한 한 축을 이룬다. 저와 같이 지퍼진 불씨는 한국전쟁 와중에 엮히락뒤치락하며 벌어진 동족 간의 살육을 통해 한 마을은 물론 한반도 전역을 폐허로 만드는 위험한 동력원으로 작용한다. “이 경황 속에서 비바우영감의 아내는 실성하였고”(78) 조울증적 징후에서 비롯한 이상 행동 가운데 마을에 대한 저주를 담은 악담을 퍼붓는가 하면 고통스런 울분을 토하여 사람들의 연민과 공포를 함께 자아낸다. 이렇듯 정신적 외상으로 빚어진 병적 징후는 이로써만 끝나는 것이 아니며 그 진폭이 점차 커진다. 그도 그럴 것은 여순사건과 한국전쟁을 겪는 과정에서, 미륵레 가족과 벤강쉬 가족 사이에서 끈질긴 복수극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대를 이어 벌어진 비극적 경험이 성장 도정의 두 인물에게 정신적 외상을 안겼음은 말할 나위 없는데, 특히 미륵레의 충격은 지독한 상흔으로 각인된다.

간간이 그 비바우영감의 아내는 누구누구는 내 손으로 기어이 죽이고 말겠 다면서 악을 써대다가, 우다시배가 불타던 날 밤 이 마을을 도망쳐 나간 두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새끼들아, 느그들은 왜 애비 웬수를 안 갚느냐야!”

하고 울음을 터뜨리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러면 이 마을은 금방 숙연해지곤 하던 것이었다. 그럴 때면 으레 아직 열세살 밖에 안 되었다고는 하나, 벌써 툭상스런 아낙네만큼이나 몸이 붙어 있는 미륵레가 나와서, 울어 대는 어머니를 떠밀고 집 안으로 들어가곤 하였다. (『폐촌』, 79)

그 이듬해 가을의 어느 날 저녁, <…> 경비대에 들어간 뱀강위의 형이 돌아온 것이었다.

사실 그는 여수 지방에 머무르던, 당시 14연대가 일으킨 ‘반란사건’에 가담했다가 진압군에 쫓겨 도망을 온 것이었다. <…> 이러한 판국에 있는 그에게 자기를 살인혐의자로 끌어가려고 회령 파출소 직원들을 뒷전에서 총동질했었음에 틀림없을 비바우영감의 두 아들에 대하여 사무친 원한이 끓고 있었던 것이었다. 그는 결국, <…> 비바우영감네 집으로 달려가기가 무섭게 실성한 채 약을 써대는 그 영감의 아내에게 총알을 먹였다. 이어 미륵레의 언니인 야실이의 가슴에도 총알을 쏘서 넣었다. 다음 미륵레한테 쏘아 댄 참이었다. 그때, 열네 살이라고는 하나 이미 숙성한 아낙네 이상으로 몸이 크게 자란 미륵레는 피를 팔팔 쏟아 내면서 쓰러진 어머니와 언니의 몸을 싸안은 채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 ‘인민해방을 위한 혁명 대열에 앞장을 서고 있다’는 <…> 형은 무서운 것이 없는 듯했다. 어쩌면 미친 듯했다.(82)

아버지는 물론 이제 어머니와 언니가 처참하게 총살당하는 현장을 직접 경험하는 미륵레에게 가해진 충격은 이루 헤아리기 어려울 만치 심각하다. 그로 인한 트라우마의 폭이나 깊이가 심대할 것은 물론이다. 그 트라우마가 그녀의 삶의 궤적마다 간섭하면서 온전한 삶을 이어갈 수 없게 했을 테고 그로써 폐촌으로 흘러들어 기괴한 행태를 보이게 한 것이다. 이러한 파국의 주범인 형 또한 모종의 광기에 지배당하고 있었으며 그 광기의 동력원이 사회주의 이념이었다는 점이 위와 같이 드러나는 한편 그도 토벌군에 의해 죽었다고 알려짐으로써 소설에서 문제 삼은 한국전쟁 트라우마의 의미망이

사뭇 넓어지는 단서가 된다. 아들의 죽음에 대한 슬픔을 쉬쉬하며 가슴 속에 묻어둘 수밖에 없던 아버지가 인민군의 위세를 등에 업고 숙청의 광풍을 몰고 왔다가 전세가 뒤집히면서 죽음을 당했다는 소문이 돌기까지, 한승원이 형상화한 한국전쟁 트라우마는 역사의 줄기를 타고 끈질긴 갈등의 고리로 얽히고설킨 것으로 제시되어 의미심장한 결실을 맺는다.⁸⁾

한편, 임철우는 한국전쟁을 직접 체험하지 않은 전후 세대 작가군의 한 구심을 이루는 작가로서, 일방적인 반공 이데올로기적 해법에 얽매이지 않는 전향적인 이야기 구도를 제시한다. 한국전쟁 트라우마를 지닌 이들을 연민하고 그들의 처지와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던 이가 마음을 바꾸어 가는 과정을 그리는 과정에, 전쟁 당시의 충격적 경험을 상당히 우회하여 던지시 기술하는 방식이 주목을 끈다.

아버지는 돌아가셨다. 먼 곳으로 배를 타고 나갔다가 영영 돌아오시지 못하게 된 것이야. 아버지께 대해 물으면 어머니는 겨우 그렇게만 대답해 주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같은 반의 먼 친척뻘 되는 녀석으로부터 나는 아버지께 대한 놀라운 비밀을 우연히 전해 듣게 되었던 것이었다. 대문을 박차고 뛰어 들어와 나는 다짜고짜 어머니를 붙잡고 덤벼들 듯이 따져 물었다. 그 순간 어머니의 얼굴로 짧게 스쳐 지나가던 그 참담한 고통의 빛을 나는 지금도 잊지 못한다. 그러나 어머니는 애써 태연한 얼굴로 내게 간신히 이렇게 대답하던 것이었다.

그래. 아버지 죄를 지었던다. 아직은 넌 모를 테지만, 그 때문에 아버지는 집을 떠나신 거여. 하지만……네 아버지는 눈매가 고운 분이셨다. 우리 마을에서 단 하나뿐인 학생이었고……남들이 사람을 해치려는 걸 한사코 말리시

8) 일제강점기의 신구 세력의 이데올로기적 대립 양상이 민족 이념의 갈등으로 비화되고 그가 좌우 이데올로기의 대립 양상으로 전이되는 한편, 한국전쟁으로 정점에 다다른 갈등이 현실적 이권 다툼으로 빚어진 심대한 갈등 양상의 연원으로 극화된다는 설정은 한승원 소설의 중요한 서사 구성 원리로 꼽힌다.(장일구, 『역사와 허구의 변증-한승원 소설의 구성 원리』, 『작가세계』 겨울호, 작가세계, 1996 참조).

려고 했지. 그 때문에 살아난 사람도 여럿이 있어. 정말이여.

그런 어머니의 변명은 끝끝내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지 못했다. (『아버지의 땅』, 110-111)⁹⁾

아버지가 지은 ‘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것이 정녕 죄인지도 불분명하게 진술되어 그 실제적 정황을 가늠하기 어렵다. 그에 대한 가치 판단을 내리기 곤란함은 물론이다. 그렇지만 아버지의 행위가 단죄된 것은 현실의 이념적 조건에 따른 것일 뿐 당사자는 물론 어머니로서는 도리어 의로운 것이었다는 의중이 읽힌다. 물론 정작 그러한 아버지에 대한 풍문 탓에 ‘내 마음’은 이미 상한 터다. 이처럼 전쟁을 경험하고 그 와중에 상처를 입은 당사자들의 문제 상황이 구체적으로 기술되는 대신, 전쟁의 그림자가 드리운 현실에 처할 수밖에 없는 전후 세대의 아픈 마음이 한국전쟁 트라우마의 형상을 대신한다. 이를테면 다음과 같은 식으로 전쟁의 상흔을 지닌 이들의 마음과 처지를 이해하려는 인물의 속내가 이어 기술되는 식이다.

그 후로 나는 좀처럼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꺼내지 않게 되었다. 뜻밖에도 아버지의 죄를 순순히 시인하는 그녀의 한마디가 내게는 그토록 엄청난 충격으로 깊이 남겨졌던 탓이리라. 바로 그 순간부터 나는 아버지의 그 죄라는 것을 내 스스로 함께 나누어 지니고 만 느낌이었고, 그 때문에 나이에 걸맞지 않게 나는 눈빛이 깊고 어두운 아이가 되어 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때부터 아버지의 무서운 환영은 저주처럼 내 곁을 따라다니기 시작했다. 그는 언제나 시커먼 어둠 저편에 숨어서 음산하기 그지없는 눈빛으로 나를 쏘아보고 있었다. 그는 어디에나 숨어 있었다. 내 어릴 때 이따금 고개를 디밀어 들여다보면 마루 밑 저편 깊숙이 도사리고 있던 그 까마득한 어둠 속에도 그 어둠 속에서 술술 기어 나오던 그 녹녹하고 음습한 냄새 속에서도 내가 한 번도 얼굴을

9) 임철우, <아버지의 땅>, 『곡두 운동회 외』, 『한국소설문학대계』83, 두산동아, 1995. 이후 같은 책에서 인용할 때에는 인용 대목 끝에 작품명과 쪽수만 밝히기로 함.

본 적이 없는 그 사내는 핏발 선 눈알을 번득이며 나를 쏘아보고 있는 것이었다. 그건 어디서 묻었는지도 모르는,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까지 지워지지 않는 핏자국처럼 내게는 저주와 공포의 낙인으로 깊이 박혀져 있었다. 그리고 그 낙인을 가슴에 지닌 채, 나는 끝끝내 나를 휘감고 있는 어떤 엄청난 죄악감과 불길한 예감으로부터 영영 벗어날 수가 없었다. (『아버지의 땅』, 111)

한국전쟁의 상흔은 이데올로기적 단죄로 인해 전후의 현실적 문제 상황에 처한 이들에게도 안겨진 것이다. 어쩌면 이들을 압박하는 이념이 전쟁 와중의 직접적 체험에서 비롯된 것보다 더 강한 트라우마를 잠재시키는 기제로 작용하는지도 모른다. 임철우는 피해 당사자보다 더 심대한 트라우마에 강박된 전후 세대들의 마음을 성찰하여 아버지 세대와의 불화를 부추긴 이데올로기의 끈질긴 담론적 실천을 들추는 책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전쟁 트라우마는 비단 전쟁 상황에서 빚어진 것만이 아니라 그 이후의 삶의 장을 장악하고 때로 안정된 삶의 기반을 뒤흔드는 이데올로기 기제를 통해 자장이 확산된다는 의식이 이를 통해 서사적 형상을 입는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4. 전쟁 트라우마의 서사적 반향

한국전쟁은 집단적 혹은 사회적 차원으로 비화된 트라우마를 낳았다. 기실 트라우마는 전쟁이나 대학살(holocaust)의 참극을 목격하거나 그 현장에서 실제로 물리적인 외상을 입어 죽음에 근사한 고통을 당한 충격에서 오는 경우에 더욱 문제시된 테마이다.¹⁰⁾ 이는 직접 일을 당한 이들 개인의

10) Kai Erikson, 'Notes on Trauma and Community', Cathy Caruty(ed.), *Trauma: Explorations in Memory*, Johns Hopkins UP., 1995, p.185 참조.

문제를 넘어 집단적 공황이 부르는 상흔으로 비약되는 것은 물론, 비극적 역사의 원인을 반대편 이념의 책임으로 전가하여 이념적 선택의 여지를 원천봉쇄하고 억압함으로써 야기된 이차적 트라우마의 사회적 문제로 전이된다. 이념 문제로 환원된 문제 상황일수록 다른 이념적 가치에 대해 발설하는 것 자체가 적대적인 편에 놓이는 까닭에 언로를 차단하는 전략에 휘말리기 십상이다. 그런데 트라우마 치유의 관건은 그 기억의 연원과 내용을 직면하고 이를 이야기하여 푸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말문’을 틔우는 데 있다. 그러므로 문제의 연원을 이데올로기적 대립 구도에 고착시키려는 쪽은 트라우마의 치유를 모색하는 데 나서기는커녕 도리어 트라우마로 인한 사회적 문제 상황을 조장하고 그로 인해 고통 받고 정신증적 징후를 안은 이들을 사회적 부적응자로 전락시키는 계락을 구사하기 일쑤다. 이데올로기는 그 자체로서 반치유적 기제이다.

상대적으로 그러한 강박을 조장하는 이데올로그들의 책략에 대응하여, 말문을 틔으로써 고통스런 기억을 공유하는 이들 서로가 연민하고 감성이 어우러지면서 연대 의식을 이를 여지가 조성된다. 이로써 트라우마에 강박된 채 이데올로기적 억압에 짓눌려 고통스런 사태를 차마 발설하지 못하던 이들이 서로 담화의 장에 참여하여 어우러지는 정황이 형성될 법하다. 함께 고통당한 이들이 있다는 사실을 의식한 터라면 혼자서는 떠올리기 끔찍한 기억이라도 언로가 트인 공간에 투사할 수 있는 정신적 전기를 열 수 있는 것이다.

트라우마로 깊이 남은 상흔은 관념도 아니며 그렇다고 물리적 실체도 아니다. 관념이라서 뇌리에서 지우면 그만일 수 없으며, 실체라서 덮어버리거나 없애버리거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의식의 저변에 잠재되어 있어 눈에 띄지는 않지만, 계기마다 의식의 표면에 돌출되어 고통스런 기억 뭉치로 떠오른다. 때로 심신증적 징후를 야기하거나 심지어 자학

적인 행동까지 유발하여 문제이지만, 결국 트라우마는 그 실체 여부보다는, 삶에 작용하는 과정이 이해의 관건인 것이다.

그렇다면 정신적 외상은 그 병반을 치유하여 회복하거나 맺힌 응어리를 풀거나 하여, 당사자가 정상적인 의식과 안정된 삶의 자리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치유책을 구하는 편이 타당하다. 당장 고통스럽다고 해서 기억을 덮어버리려 드는 것도 문제이며 그 기억을 무턱대고 드러내고 도려내어 없애려 하는 것도 문제다. 고통스런 사태에 대한 기억을 직면하여 이를 수용할 수 있도록 돕는 담화의 장을 여는 것이 치유의 구심점인 만큼, 상흔을 실제로 보고 이를 마구 건드려 환부를 더 키우거나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하는 것을 경계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따라서 기억의 저편에서 우원하여 이야기를 유도하는 처방이 효과적인데, 이를테면 심리극(psycho-drama)의 원리처럼 대역(persona)을 내세워 그 사연을 이야기하거나 극화함으로써, 기억에 직면해야 하는 당사자의 고통을 덜어 담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것이다. 서사적 담론은 이 맥락에서 매우 효과적인 처방의 전형이라 해도 좋다.¹¹⁾

트라우마의 치유 방식으로서 모색할 서사의 양상이 단면이나 단방향일 수는 없다. ‘대학살’의 참극, 그 살육의 현장에 연루되었을 이들에 얽힌 사연이 한두 가지 면에만 걸쳐 있지는 않을 것이다. 죽어간 이들, 심하게 부상을 입어 고통을 겪는 이들, 피해 당사자들보다 더한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가족들, 동료의 죽음을 지켜보며 자신만 살아남았다는 죄책감에 괴로워하는 이들, 혹은 총칼 앞에 무력할 수밖에 없었음을 자책하는 이들, 심지어 무자비한 폭력을 휘두르며 무고한 이들을 난자하고 그들에게 총을 겨눴던 이들에 이르기까지, 언뜻 떠올려 보아도 여러 국면의 이야깃거리가 있음

11) Cheryl Mattingly, *Healing Dramas and Clinical Plots*, Cambridge UP., 2007, pp.1-2, pp.6-11, pp.104-108 참조.

직하다. 정신적 외상의 계기가 다를 것이며 이를 깊어지려는 태도 여하가 다를 것인 만큼 이야기의 양상이 각색일 게 분명하다. 병반의 상태가 다르기에 치유의 처방을 다각도로 모색해야 하는 것도 수순이다. 결코 일방적인 이념의 강요나 적대적 이념의 강압을 통해서도 치유의 방향을 구성할 수 없다. 『폐촌』의 다음 대목은 이 맥락에서 의미심장한 서사적 전언이다.

“저도 우리 아버지나 어무니나 여동생의 웬수를 갚을 수는 있었어라우. 그 라제마는, 참었습니다. 혹시 제 동생 검철구가 영똥한 것거리를 할까만이, 이틀 사흘 걸러 꼭꼭 전화를 했어라우. 고향 사람들한테 복수를 할 생각은 꿈에도 가져서는 안 된다고 말ियो. 어르신들, 생각해 보시오. 우리 서로 그래서 쓰겼소? 저는 우리 아버지나 어무니나 야실이를 죽인 것은 동네 청년들이 아니라고 생각하요. 우리가 잘못 만난 시국 탓이지라우. 그 시국이 죽인 것이지라우. 그렇게 우리 일단 이 자리서 과거지사를 썩 쓸어다가 잊어뽀시다. 그리고, 그런 일이 씨도 없었던 것으로 치고, 다시 옛날 맹이로 오순도순 정답게 삼썩다. 어르신들, 어짜요? 제 말이?” (『폐촌』, 91)

충격적인 동족상잔의 비극이 복수에 복수를 낳는 악순환 가운데 심화되고 그 와중에 원한에 사무친 정신적 외상으로 고통 받는 이들의 위기가 ‘시국 탓’이라는 말은 한국전쟁 트라우마의 자장이 사회 역사적 차원으로 비화된 것이라는 의식을 드러낸다.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노력이 사회적 차원에서 공동체 의식을 복원하는 데 수렴된다는 생각이 이로써 시사된다. 의식 아래 무의식의 심층에 파리 뜬 아픈 기억을 들추어 이야기 나누어 풀고 ‘과거지사’에 아랑곳없이 얽힌 관계를 뚫으로써 갈등의 씨앗이며 정신적 고통의 원인인 기억을 일소하려고 도모하는 것만이 온전한 치유의 계기가 된다는 심산은 실제 정신적 외상의 치유 과정에서 통용된다. 서로가 피해자이자 가해자인 이들 서로가 맺힌 원한을 풀고 원만하고 안정

된 관계를 회복하자는 심산 또한 그렇다. 벵강쉬가 미륵레와의 옛 인연을 이어 함께 살고자 애쓰며 종내 둘이 화해하고 연을 맺는다는 「폐춘」의 이야기 선은 한국전쟁 트라우마 치유에 대한 서사적 대응의 뚜렷한 지평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¹²⁾

비슷한 맥락에서 「아버지의 땅」의 결말 대목도 주목할 만하다.

두개골과 다리뼈를 꼼꼼히 문질러 닦은 뒤, 노인은 몸통뼈에 묶인 줄을 풀어 내기 시작했다. 완강하게 묶인 매듭은 마침내 노인의 손끝에서 풀리어졌다. 금방이라도 찢겨떨겨 췌소리를 낼 듯한 철삿줄은 싱싱하게 살아 있었다. 살을 녹이고 뼈까지도 녹슬게 만든 그 오랜 시간과 땅 밑의 어둠을 끝끝내 견뎌 내고 그렇듯 시퍼렇게 되살아 나오는 그것의 놀라운 끈질김과 냉혹성이 언뜻 소름끼치도록 무서움증을 느끼게 했다.

노인은 손목과 팔에 묶인 결박까지 마저 풀어 낸 다음 허리를 펴고 일어서더니 줄뭉음을 들고 저만치 걸어 나갔다. 그가 허공을 향해 그것을 멀리 내던지는 순간 나는 까닭 모르게 마당가에서 하늘을 치어다보며 서 있는 어머니의 가녀린 목줄기와 그녀가 아침마다 소반 위에 떠서 올리곤 하던 하얀 물사발이 눈앞에 떠올랐다가 스러져 버리는 것이었다. (「아버지의 땅」, 121-122)

한국전쟁 트라우마는 주검을 옮아맨 ‘철삿줄’처럼 사람들의 정신을 강하게 속박하여 움짱달짱 못하게 한다. 시신은 세월이 지나 삭아 사라지지만 저 실제 모를 트라우마는 철삿줄처럼 끈질기게 세월을 견디고 되살아나서 지독한 공포를 안긴다. 그래서 주검을 결박한 철삿줄을 풀어내는 행위는, 아버지를 간절히 기다리며 치성하는 어머니의 행위를 떠올리며 그 사무친

12) 이 맥락에서 서사의 치유적 효과가 문화적 차원에서 펼쳐지는 치유 의례의 효과에 견주어진다는 점을 의식함직하다(매팅리(Mattingly), 앞의 책, pp.164-165 참조). 그 효과는 소통을 통해 이루어지는 공동체의 유대감인데, 이는 상징인류학자 터너가 제시하는 커뮤니티스(communitas)에 수렴된다(Victor Turner, *Dramas, Fields, and Metaphors*, Cornell UP., 1974, p.45 참조).

심정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장면이 조용되면서, 전쟁의 트라우마를 해소하려는 모색의 우회적 표상이 된다.

임철우는 「뒤안에는 바람 소리」이나 「곡두 운동회」 등에서도, 알레고리를 통해 전쟁의 상흔을 넘어서 이야기하거나 미성숙한 인물들의 시각을 통해 생사의 갈림길을 결정하는 좌우 이념 투쟁의 현장을 환영(幻影)과도 같은 곡두 운동회라 판정하는 설정을 통해 한국전쟁 트라우마로 야기된 현실적 문제 상황에 대한 해법이 양단의 이념을 고수하거나 또 다른 이념의 길로 선회하거나 하는 식이 되어서는 곤란하리라는 생각을 형상화하고 있다. 밑도 끝도 없는 이념의 질긴 동아줄을 끊고 그 대립의 구렁텅이에서 벗어나지 않고서는 사회의 문제 상황을 해소할 길을 찾을 수 없으리라는 생각이 넘쳐서 개진되고 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¹³⁾

한국전쟁과 같이 역사적 비극이 유발한 집단적 트라우마는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차원에서 처방을 모색해야 하는 상흔이다.¹⁴⁾ 구성원 개인의 총합이 사회의 외연에 훨씬 못 미치듯, 전쟁 와중에 입은 개인의 트라우마는 그 모두를 모은다 해도 사회적 트라우마의 크기나 비중을 미치지 못한다. 나치의 대학살에 대규모로 희생된 유대인들의 정신적 외상을 치유하기 위한 대책이 범세계적인 차원에서 진행되었음을 돌이켜 보아도 좋다. 물리적인 보상이나 전범의 처벌과 같은 가시적인 처방으로만 이를 수 없는 치유의 국면은, 트라우마의 상흔을 딛고 정상적인 삶의 에너지로 승화할 수 있도록 돕는 문화적 차원의 상징적 처방을 요구하는 데 이른다. 서사적 담론

13) 이러한 작가 의식과 서사적 형상의 양상은 임철우 소설의 본령이라 할 수 있는 5·18 관련 소설에서 선명히 드러난다. 그의 소설은 언로가 막힌 시대에 소설을 통해 말문을 트는 일의 의의를 돌이키게 한다(장일구, 「오월의 원상, 그 서사적 치유」, 『한국문학이론과 비평』20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3, pp.273-276 참조).

14) Kai Erikson, 'Notes on Trauma and Community', Cathy Caruty (ed.), *Trauma: Explorations in Memory*, Johns Hopkins UP., 1995, p.185 참조.

은 떠올리기 쉽지 않은 정신적 외상의 연원을 드러내어 갖은 형상들을 통한 처방을 제시하는 기제로 작동한다. 개개인들에게는 사태의 진상과 체험을 진솔하게 이야기함으로써 악몽과도 같은 기억을 떨치게 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며, 그러한 이야기들이 공식적인 담론의 장에 부쳐짐으로써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성원들의 문제 상황을 공론의 장에서 직면하고 문제 상황을 해소할 방식에 대한 모색의 전기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트라우마로 인한 정신적 징후의 치유를 위한 해법을 소설에서는 어떠한 양태로 제시하는지 관건으로 부상한다. 실로 그 치유의 방책은 단순히 환부를 찾아 말끔히 도려내는 외상 치료 방법과는 다르다는 것이 일반적인 모색의 방향이다. 정신적 외상은 어떠한 장면이나 사건이 충격적인 경험으로 환원되어 의식 저변에 잠재된 양태로 각인된 것일 뿐 실체가 분명한 것이 아니며 그 병증의 발현 양상이 여일한 것도 아니다. 이는 그저 무의식의 저층에 잠재된 채 드러나지 않는 것이 보통이며 어떠한 계기에 의해 의식의 표층으로 역동하여 정신의 안정된 구도를 헤치고 존재에게 위해를 가함으로써 모습을 드러내는 구성적 현상과도 같다. 따라서 이를 분석하고 이에 대해 처방을 내리는 일은 일반적인 대증요법(對症療法)이나 매뉴얼에 따라 규격화된 방식에 의존하기 곤란하다. 더욱이 정신적 외상의 요인이 된 사태를 일방적인 구도에 환원하여 수용하도록 억압하거나 사태의 원인이나 문제의 책임을 호도하여 망각을 강요하는 것은 트라우마의 에너지원을 증폭시키기에 위험천만한 일이다.

『소문의 벽』은 그 위험에 대해 경고의 메시지를 표한다.

“박준을 정말로 미치게 한 것은 박사님 당신이란 말입니다. 박준이 이 병원을 찾아오기 전부터 그 전깃불에게 전될 수 없는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박준은 그래서 자신의 피난처로 이 병원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이 병원 안에서 자신을 광인으로 심판받음으로써, 그 전깃불과 불안한 소문들과 모든 세상일로부터 자신을 해방시키고 싶었던 것이지요. 한데 불행하게도 그가 피난처로 찾아온 병원이야말로 진짜 전깃불, 더욱더 무서운 전깃불의 추궁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란 말입니다. 박사님은 그가 누구보다 큰 진술의 욕망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욱 철저하게 그 욕망을 숨겨 버리려고 했던, 그러지 않을 수 없었던 박준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박사님은 그 살인적인 사명감과 자신력으로 어젯밤 끝내 박준을 미치게 하고 말았어요.” (『소문의 벽』, 237)

‘김박사’는 ‘박준’의 병증을 진단하고 그 원인을 찾는 것이 치료의 중요한 전기라는 점을 의식하여 정신증적 징후에 대증요법이 아닌 원인요법이 필요함을 알고 있는 의사다. 그렇지만 그가 구상하는 치료법이란 일방적 진술을 집요하게 강요하는 이데올로기적 폭력과 흡사한 방식이어서 트라우마의 원인을 찾아 발설하게 하는 치유책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판명된다. 정신적 외상의 환부를 후비듯 하는 ‘전깃불의 추궁’으로 빚어진 스트레스 장애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그 트라우마에 대한 진술한 자기 진술의 우회 방식을 통해 말문을 트게 하는 방책이 유효하다는 데에 생각이 미치지 못하였거나 자기 방식을 지나치게 자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기실 박준의 소설에 관심을 갖고 그 소설에 드러난 자기 진술을 진중하게 검토하라는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데서 그러한 정황이 시사된 터다. 떠올리기조차 싫은 기억을 진술하게 하여 고통에 내모는 촉매로 작용하는 추궁은 박준이 규정하는 대로 ‘위험한 질문’일 뿐이다.

자기 진술의 욕망이 부조리하게 얽힌 박준의 정신은 전깃불 공포로 야기된 트라우마와 이를 직면하여 말함으로써 그 공포를 떨쳐 소문의 탈을 쓴 이데올로기의 강박에서 해방되고자 하는 양상이 혼재된 혼란스럽고 불안정한 의식 구도에 내몰려 있었던 것이다. 박준은 안정된 삶의 조건이 되

기는커녕 트라우마를 역동시키기 십상인 현실 세계에서 도피하여, 정신의 고통을 치유하고자 병원을 찾는다. 그런데 ‘병원’마저도 전깃불의 공포로써 그의 정신적 외상을 심화하여 결정타를 안긴다. 이렇듯 병원이 병원으로서 기능을 못하고 도리어 정신적 외상의 환부를 후벼서 병증을 악화하는 장소로 전락한다거나 병증에 시달리는 이들을 감금하는 감옥과도 같은 구실을 하는 장소로 전형(轉形)된다는 것은, 국가가 국가로서 기능을 온전히 못하여 성원들의 안정된 삶의 여지를 보장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의 공간을 황폐하게 만드는 폐쇄된 감옥과도 같은 기제로 전락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과 조용한다. 병원이라는 이중적 공간이 트라우마의 치유 아닌 확산의 계기이며, 심지어 정신적 외상을 조장하는 산실에 상응하는 것으로 그려져 의미심장한 형상이 그려진 것이다. 병원은 현실에 부적응한 이를 포용하여 진술한 치유책을 모색해 주는 친화적 공간이기는커녕, 주인공과 세계 사이의 불화를 심화하는 문제적 공간으로 부상한 셈이다. 의사도 병원도 정신적 외상을 치유할 방법을 모색하는 방향에 수렴되지 못하고 오히려 집요한 진술에 대한 강박을 심대하게 하여 트라우마의 역동을 촉발하는 역기능을 함으로써, 이념에 강박된 현실의 부조리를 단적으로 반증할 뿐이다.

이에 반해 ‘G의 이야기’를 통해 투사된 박준의 자기 진술에서 정신적 외상의 치유 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나’의 생각이 서사적 치유를 긍정하고 적극 모색하는 작가 의식을 대변하는 것으로 드러난다.

전깃불이-바로 그 소설 속에 박준의 전깃불이 번쩍이고 있었던 것이다. 이상스럽게도 박준은 2년쯤 전에 말한 그 전깃불을 소설 속에서 직접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이다. 전깃불은 소설의 곳곳에서 무섭게 번쩍이고 있었다. 아니 박준의 이번 소설은 바로 그 전깃불을 위해서, 그리고 전깃불에 의해 모든 이야기가 진행되어 나가고 있는 판국이었다. 어찌 보면 박준 자신이 전깃불

아래 앉아 끊임없이 그 전깃불의 강한 조명을 받으면서, 소설을 쓰고 있었던 것 같기도 했다.

아마 이젠 제가 국민학교 4학년쯤 되었을 때의 일 같군요. 국민학교 4학년 때라면 그러니까 6·25전란으로 마을 청년들이 한창 군대들을 나가던 때였지요. <...> 도대체 전깃불은 어째서 늘 이쪽에서 대답할 수 없는 것만 묻고 있는가 원망스럽기만 했어요. 하지만 제가 아직도 계속 가슴을 떨고 있었던 것은 청년을 숨겨 놓고 나서 그의 물음에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지 몰라서 그랬던 것만은 물론 아니었어요. 역시 그 전깃불빛 때문이었지요. 뒤에 선 사람의 얼굴을 절대로 볼 수 없는 그 무시무시한 전깃불 말이에요…….

박준의 소설은 이를테면 그런 식이었다. 좀더 자세히 이야기하자면, 이것은 소설의 주인공인 G가 그의 환상 속에 나타난 심문관에게 자신의 과거를 고백하고 있는 대목의 하나인데, G가 그런 식으로 환상의 심문관 앞에 자기의 과거를 고백하게 된 경위는 이러했다. (『소문의 벽』, 207-209)

‘나’는 박준이 쓴 소설이 전깃불의 트라우마를 주제화한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면서 소설을 통한 자기 진술로써 박준이 전쟁의 트라우마를 직면하고 전후의 시대적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확대 재생산되던 그 트라우마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얻었다고 확신한다. 그리고 ‘전깃불의 공포’와 ‘소문의 벽’을 조음시키며, 한국전쟁 트라우마와 이데올로기적 강박을 계열화하여 해석하는 박준의 생각을 수궁한다. 종내 자신의 처지를 박준의 처지에 대응시키며 현실의 문제 상황이 전깃불 공포에 내몰린 상황과 매한가지라고 확인하기에 이른다.

박준의 사정이 확실해진 만큼 또 하나 확실해진 것이 있었다. 잡지 일이 탁탁해진 이유였다. 원고들이 잘 견치지 않고 있는 것이나 견혀 들어온 원고들이야 모두 그렇고 그런 이유가 비로소 분명해져 있었다. 전깃불 때문이었

다. 박준을 괴롭히고 있는 전깃불은 비단 박준 그 한 사람만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진술이라는 것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그것이 비록 자발적이든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든, 또는 일부러든 무의식중예든 조금씩은 그 전깃불빛 비슷한 것을 눈앞에 받아 보지 않은 사람이 없다. 누구나 자기의 전깃불은 가지고 있게 마련이다. 한테 그 전깃불이란 이쪽에서 정직해지려고 하면 할수록, 그리고 진술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더욱더 두렵고 공포스럽게 빛을 쏘아 대게 마련일 수밖에 없었다. 원고들이 잘 견혀들 리 없었다. 쉽사리 거뒀들일 수 있는 글이란 그 전깃불빛을 견디려 하지 않은 것들뿐이었다. 그런 글들이 신통할 리 없었다. 사정이 거기까지 확실해지고 나자 나는 혼자 실소를 머금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도대체 잡지를 만든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일인가.

오랫동안 주머니 속에 뒹굴려 대고만 있던 나의 사표에 생각이 미쳐 간 것이다. 그리고 이때 비로소 나는 내가 무턱대고 사표부터 써넣고 다니게 된 나의 이유를 발견할 수 있었다. 나에게서는 이미 나 자신의 진술의 길이 막혀 있었던 것이다. (『소문의 벽』, 232-233)

내포작가 층위의 서사 대리자(narrative agent) 격이 초점화 된 듯한¹⁵⁾ ‘나’의 진술로 기술된 위 대목은 『소문의 벽』을 통해 드러내고자 하는 작가 의식이 투영된 것이라 해도 좋다. 한국전쟁 트라우마의 자장이 현실의 문제 상황에 미치고 있다는 의식, 그 트라우마 치유의 방향이 서사적 병리학 차원에 정향될 여지가 크다는 의식이 이야기 문맥을 통해 전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메시지는 『가위 밑그림의 음화와 양화』 연작과 같이 다른 소설의 문면을 통해서도 적지 않게 드러나고 있어 이청준의 의식의 일단을 엿볼 수 있는 방증을 더 얻을 수 있다.¹⁶⁾

15) Patrick O'neill, *Fictions of Discourse*, Toronto UP., 1994, p.97 참조.

16) 이를테면 연작 중 하나인 『전깃불 앞의 방백』의 다음 대목 같은 사례를 방증으로

5. 결론

정신적 외상의 치유에 관해 이청준이 던지는 의미심장한 메시지는 이미 『퇴원』에서 명시적으로 극화되어 있던 것이다. 트라우마의 역동이 외연을 가늠할 수 없는 갈등의 파장을 짓는다는 점에서 그로 파생되어 사회적으로 확산된 사회적 트라우마에 대한 치유의 모색은 단순한 물리적 처방에 국한될 수 없다는 점이 형상화되고 있는 것이다. 집단적 트라우마를 야기한 비극적 역사의 기억이 여러 사회적 문제의 파문을 크게 일으킨 점을 고려할 때, 그 치유의 방법은 문화적 차원으로 비약된 표상 국면에 회부될 것이라는 지평이 열린다. 삶의 대소사에서 빚어진 문제를 이야기를 나누어 해소하고 갈등으로 얽히고설킨 관계를 풀려는 문화적 차원의 서사적 대응이 이 맥락에서 기대를 모으며, 실로 트라우마 징후를 치유하기 위한 해법으로

삼을 수 있다.

“실제의 삶에서나 그것의 원리적 희망의 기호물인 소설 속에서나 자아 망실의 욕망은 그러므로 본질적으로 성취될 수가 없고 성취되어서도 안 될 것으로 생각한다. 진정한 삶은 환상으로의 일시적인 도피보다 진정한 자아의 진실을 근거로 하여 갈등과 역놀림에 맞서 나서야 할 뿐 아니라, 실제에 있어서도 그 밖의 다른 길은 없는 때문이다. 내 개인적인 체험에 불과한 일이지는 하지만, 저 혹독한 6·25의 경험 속의 공포의 전깃불(다른 곳에서 그것에 대해 쓴 일이 있다), 그 비정한 전깃 불빛 앞에 나는 도대체 어떤 변신이나 사라짐이 가능했을 것인가. 앞에 선 사람의 정체를 감춘 채 전깃불은 일방적으로 ‘너는 누구 편이냐고 운명을 판가름할 대답을 강요한다. 그 앞에선 물론 어떤 변신도 사라짐도 불가능하다. 대답은 불가피하다. 그리고 그 대답이 빗나간 편을 잘못 맞췄을 때 그 당장에 제 목숨이 달아난다. 불빛 뒤의 상대방이 어느 편인지를 알면 대답은 간단하다. 그러나 이쪽에선 그것을 알 수 없다. 그것을 알 수 없으므로 상대방을 기준하여 안전한 대답을 선택할 수가 없다. 길은 다만 한 가지. 그 대답은 자기 자신의 진실을 근거로 한 선택이 될 수밖에 없다. 그것은 바로 제 목숨을 건 자기 진실의 드러냄인 것이다. 그 밖의 다른 길은 없는 것이다. 마지막에 가선 자기 진실에 기대어 그것을 지키는 것뿐. 위험하긴 하지만 거기서밖에는 자신을 버티고 설 자리가 마련될 수 없으리라는 참담한 이야기다.”(『전깃불 앞의 방백』, p.652).

서사 요법이 쓰이고 있다는 점을 재삼 떠올리게 된다.

한국전쟁은 물리적 삶의 장을 폐허로 만든 것은 물론 인간의 정신을 황폐하게 한 비극적 역사다. 이데올로기의 극한 대립이 부른 그 전쟁에 동족상잔이라는 특수한 문제 상황이 대입됨으로써 일반적인 전쟁의 경우보다 사회적 차원에서 빚어진 트라우마 요인을 더 심대하게 안고 있다. 양단의 이념은 어느 한쪽만 편들도록 강요하며, 선택하지 않거나 제삼의 경우를 선택하는 것을 용인하지 않는다. 편을 묻는 상대방의 이념에 따라 생사가 갈리는 선택의 상황에서 상대의 정체를 알 수 없다는 절망감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부르며, 선택 여하에 따라 목숨을 잃게 된 사태에 직면한 이들은 극한의 공포감 속에서 충격에 몸서리치게 마련이다. 한국전쟁 트라우마는 이런 회로를 통해 산출되어 인간 정신의 가장 저층에 응축되어 잠재된 것이다.

이렇듯 이데올로기의 대립으로 조장된 트라우마는 반공 이념만을 선택하도록 강요된 전후의 문제 상황을 맥으로 하여 시간과 장소에 구애됨 없이 삶의 전역으로 확산되고 삶의 장을 장악하는 기제가 된 것이다. 그 트라우마로 인한 사회적 병리 현상의 해소를 위한 모색이 소설을 통해 진행되어 왔음은 의미심장한 지평이다. 그 지평은 비단 특정 작가, 특정 지역에 국한된 특수한 자질보다는 시공의 제약을 넘어선 인간 정신의 보편적 현상에 더 가까이 닿아 있는 듯하다.

【참고문헌】

- 김종근, 『한국전쟁 체험담 구술에서 찾는 분단 트라우마 극복 방안』, 『문학치료연구』 27집, 한국문학치료학회, 2013, pp.115-145.
- 이재선, 『현대 한국소설사』, 민음사, 1996, pp.81-139, pp.210-212, pp.230-242.
 ———, 『현대소설의 서사시학』, 학연사, 2002, pp.337-355.
- 임신영, 『소설 『트렁커』에 나타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문제 해결 방안』, 『문학치료연구』 20집, 한국문학치료학회, 2011, pp.245-270.
- 장일구, 『역사적 원상과 서사적 치유의 주제학: 5·18 관련 소설을 사례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20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3, pp.262-282.
- 하은하, 『역사적 트라우마와 관련된 문학치료연구 현황』, 『문학치료연구』 27집, 한국문학치료학회, 2013, pp.89-113.
- Caruty, Cathy (ed.), *Trauma: Explorations in Memory*, Johns Hopkins UP., 1995, pp.3-12, pp.113-127, pp.151-199.
- Freud, Sigmund, *Der Mann Moses und die monotheistische Religion*, Gesammelte Werke XVI, S. Fischer Verlag, 1981, pp.171-190.
- Mattingly, Cheryl, *Healing Dramas and Clinical Plots*, Cambridge UP., 2007, pp.154-169.
- O'Neill, Patrick, *Fictions of Discourse*, Toronto UP., 1994, pp.91-100.
- Turner, Victor, *Dramas, Fields and Metaphors: Symbolic Action in Human Society*, Cornell UP., 1975, pp.23-57.

Abstract

Narrative Figures of *Korean War Trauma*

Jang, Il-Gu

Trauma is the unconscious mechanism causes some serious mental disorders derived from the past shocking memories. Unexpected critical situations of communities in war are the severe sources of traumas. The *Korean War* that has some variables related with the specific factor of the fratricidal war deepened the crises of the whole society and mass-produced personal and social traumas. Ideological oppressions and discursive practices of anti-communism in the post-war periods were the hotbed of the wicked social traumas. The narrative therapies could be the efficient strategies for confronting the painful memories and speaking the traumatic stories openly. *Chongjun Lee*, *Seungwon Han*, and *Cholwoo Lim* are the leading novelists who presented some clues of literary pathology for the recovery of *Korean War traumas*.

Key Word : trauma, *PTSD*, post-traumatic-stress-disorder, *Korean War*, *Korean War trauma*, narrative therapy

장일구

소속 : 전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주소 : (500-757)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77 전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전화번호 : 010-5566-7201

전자우편 : communit@jnu.ac.kr

이 논문은 2014년 2월 28일 투고되어
2014년 3월 25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4년 4월 8일 게재 확정됨.